



108수의 계승으로 <중론>의 사상을 풀이한 동국대 불교학과 김성철 교수.

중관학 연구로 유명한 동국대 불교학과 김성철 교수가 <중론(中論)>을 쉽게 풀어 쓴 해설서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논리에 의한 해탈>을 펴냈다. 길고 난해한 제목과는 달리, 책은 초보 불자들도 <중론>의 핵심 사상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읽힌다. 그동안 <중론>의 '논리 해탈' 개념 이해에 어려움을 느꼈거나, 김 교수

해체 논리 알면 중론이 보인다

■ 김성철 교수 '중론' 해설서 11년만에 다시 써

의 저작 <중론>(경서원, 1993)에 실린 해설이 아쉬웠던 독자라면 읽을 만하다.

그렇다면 <중론>이란 어떤 책일까? <중론>은 기원 후 150년경의 불교학자 용수(龍樹, 150~250년 경)가 중도와 공에 대해 해설한 대승불교의 대표적 논서다. '중론'은 '중도(中道)에 대해 논리적으로 해명한 문헌'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중도는 '사상적 중도'를 의미한다. '사상적 중도'란 '무엇이 있다, 없다' 혹은 '무엇이 같다, 다르다' 등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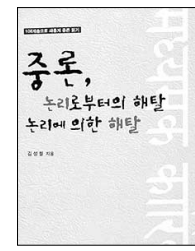
<중론>은 총 27장 450여 수의 계승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계승들은 그 내용에 따라 '논리적 계승' '선언적 계승' 그리고 '비유적 계승'으로 나눌 수 있다. 김 교수는 <중론> 전체의 가르침이 집약되어 있는 귀경계(歸敬偈) 이외에 '논리적 계승'을 중심으로 그 중요도가 높고 의미가 명확한 108수를 가려 뽑아 설명하고 있다.

1부 '중론을 읽기 전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의미, 용수의 생애와 저술, <중론>

의 특징과 공부하는 방법 등을 소개한다. 계승을 읽기 전에 <중론>을 공부하는 법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중론을 올바르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갖가지 선언(宣言)들을 읽기까지 해서는 안되고, 해체의 논리를 터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용수가 사용한 이 해체의 논리는 바로 '4구 비판(四句批判)'이다. 4구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가지 방향, 즉 긍정과 부정, 긍정하면서 부정하는 것,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우리의 일상적 사고방식을 모두 비판함으로써 중도적인 조망(觀)을 제공하는 것을 '4구비판의 논리'라고 말한다. 김 교수는 2부 '가려 뽑은 <중론>'에서 108수의 계승을 하나하나 읊으며 용수의 주요 사상과 논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간다. 불교 전문용어 중에서도 '반야'나 '중관' 같은 단어는 다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세히 그 의미를 풀이하고 있다.

3부 '<중론>을 읽고 나서'에서는 '모든 것이 공하다'라는 명제 자체도 '공'한 것에 포함된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논리에 의한 해탈 김성철 지음 불교시대사 1만원

다는 자기당착의 오류를 설명한다. 결국 "공사상은 '모든 것이 공하다'는 세계관을 심어 주기 위해 등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실체가 있다'는 착각을 시정해 주기 위해 탄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 교수는 '간화선과 <중론>, 그리고 부처님의 침묵'에서 중론의 논리해체법과 전통 간화선 수행의 상호보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간화선의 화두는 직관을 사용해, <중론>은 분석을 통해 우리를 지적인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한다"며 "이 같은 점에서 <중론>은 선불교와 초기불교를 연결해 주는 논리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론>이 전통 간화선 수행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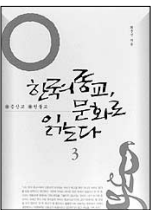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운 책

■ <산티니케탄>(하진희 지음, 여름언덕, 1만2천원)=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일군 교육도시 산티니케탄에 관한 이야기. 산티니케탄의 비스바바라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지은이가 10년에 걸쳐 그곳에서 공부하고 왕래하며 겪은 이야기들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마르티아 센과 프린스턴대학 교수 푼돌이 까프만 이 아니라 세계 유수의 대학 교수들이 자라난 산티니케탄의 자유로운 수업방식과 이 마을의 역사와 운영방식, 그리고 학교를 세운 타고르의 일대기 등을 꼼꼼하게 담고 있다.



■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 다>3(최준식 지음, 사계절, 1만5천원)=국제한국학회 회장 최준식 교수(이화여대)가 펴내는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세 번째 권에서는 원불교와 증산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이 책에서 원불교와 증산교를 통해 신종교가 한국 종교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의를 짚어보고 있다.



■ <법상머리 치유와 행복>(김수현 지음, 중앙생활사, 1만2천9백원)=식생활 전문강사인 김수현 씨가 '법상머리'에서 자연의 심성을 배우는 법을 소개한다. 책에서는 여성들이 삶 속에서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치유해나가는 법을 알려준다. 또한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日 계율연구서 일부 풀이



비구계의 연구II 히라카와 아키라 지음 혜능 스님 옮김 민족사 | 2만5천원

흔히 '계율'이라고 하면 계에 대한 이해와 실천만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해인사 출원장 혜능 스님은 "율의 연구는 단순한 율의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리의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교리와 사상 그리고 개인의 생활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사상이나 인생관에 의해 그 사람의 생활이 규정됨과 동시에, 자신의 생활에 의해 사상이 좌우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스님은 말한다.

최근 혜능 스님이 펴낸 <비구계의 연구II>는 구족계를 받은 비구들이 지켜야 할 250계에 관한 연구서인 히라카와 아키라(阿部 明) 박사의 <이백오십계의 연구> 전 4권 가운데 두 번째 권을 우리말로 풀이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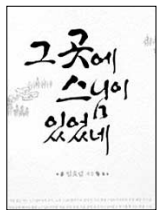
책에서는 부정법 2조와 사타법 30조를 다루고 있다. 각 계율의 갖는 의미와 계율이 성립된

인연담을 설명한 뒤 조문을 하나씩 해석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조문을 산스크리트어본, 팔리어본, 티베트어본, 한역본과 함께 비교해 살피고 있다.

부정법(不淨法)이란 '결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죄를 발견했을 때 그 자리에서 죄의 유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나중에 조사하여 죄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타법(捨墮法)이란 비구가 소유해서는 안 되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빠지는 죄다. 이 경우에는 죄에 저촉된 물건을 승가 혹은 다른 비구에게 내놓고 소유를 버린 뒤 참회를 하게 된다. "비구는 스스로 판매하며 이익을 구할 수 없다" "여분의 발우를 얻은 경우 10일간만 소지할 수 있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사타법의 조문을 통해 초기 비구의 일상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여수령 기자

배시시 웃음 퍼지는 스님들의 수행일화



그곳에 스님이 있었네 효림 스님 지음 바보새 |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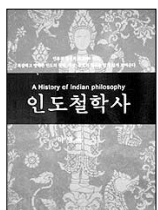
일화 하나. 상원사에 주석하던 운산 스님이 매일 새벽 도량석을 하는 스님에게 명주 목도리와 병어리장갑을 선물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 스님. 자신도 목도리를 받았으며 도량석 소임을 자처하고 나섰다. 도량석을 하다가 노스님의 방 앞에 멈춰 선 스님의 한마디. "명주 목도리 사바하..."

아침 공양 후 노스님은 "좋은 진언은 감응이 빠른 법"이라며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 주고, 그 스님은 "훌륭한 선객은 부처님의 감응을 직접 받지 않고 즉각 회향하는 것"이라며 목도리를 돌려줬다고 한다.

스님들의 수행일화를 들다보면 스님에게서 어린 아이와 같은 천진한 모습을 발견하고 살며시 웃음 짓기도 하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얼마나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가를 반성하기도 한다.

효림 스님의 <그곳에 스님이 있었네>는 이러한 스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매일 아침 백팔참회를 잊지 않았던 청담 스님과 조는 스님에게 장군죽비를 내리친 후 "너희를 부처님으로 만들려고 단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해암 스님을 비롯한 큰스님들과 도반들에 대한 애정 어린 글들 볼 수 있다.

인도철학 강의 맥 짚기



인도철학사 이병욱 지음 문주사 | 1만원

'인류의 정신적 보고(寶庫)'라고도 할 수 있는 인도철학. 그 역사만큼이나 깊고도 복잡한 '인도철학'의 흐름을 짚어주는 개설서 <인도철학사>가 나왔다.

이병욱 박사가 펴낸 이 책은 인도철학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은 아니다. 그동안 지은이가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인도철학을 가르치며 정리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때문에 "인도철학의 내용을 분명하게 정리해 독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는 지은이의 말처럼 그리 어렵지 않게 책장을

넘길 수 있다.

지은이는 인도철학사를 맹아, 성립, 체계화, 전개 그리고 영국 지배 시기 이후로 나누어 설명한다. 또한 책에서는 우파니샤드와 불교철학을 같은 시대에 다루고, 흔히 '6사오도'라 불리는 6명의 사상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인도의 역사나 사상을 우위에 놓고 보는 선입관을 넘어서자는 뜻에서다. 하지만 전문용어나 학술적 근거에 대한 주註와 여러 학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금주의 베스트도서 10

책방 역시아문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오체무지	한 경 해	반디미디어
2	인연법과 마음공부	혜국 스님	효 림
3	텐진빠오의 마음공부	텐진 빠오	열 림 원
4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 터
5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김 성 철	불교시대사
6	예세초점	예 세 초 점	김 영 사
7	스님이야기	지록 스님	이 트 아 문
8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청화 스님	이 트 아 침
9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은 스님	랜덤하우스중앙
10	불교가 정말 좋아지는 불교우화	이 용 범	수 회 재

도서 안내: (02)737-0695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역겹의 계승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이 시대의 아부 선사! 대원 문재현 선사(전장 선사님(인가제사)의 감로법문 바로본인 반야심경으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일시: 매일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천하제일의 운명의 등대 천신의 안내서



육경신을 통한 저자 74세

八卦秘傳 팔괘비전

閱易神書

增補版 증보판

열역신서 天醫仙道 太宗仙師 楠宮 金永生 編著

제1편 운명의 예언

人生은 매우 운명은 각본 생활은 연출

당신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시각각의 변화 양상이 수록되어 있다. 어떠한 난관에 처해도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처신 방향을 정확히 설파해 놓았다. 그래서 神書이다.

저자는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 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 터인데,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인명을 구하고 구천에 방황하다 후손의 몸에 빙의되어 사육편정을 조성하는 영혼에게 사면령을 내려 연화장세계로 보내라는 천명을 받고 전 인류에게 알리기 위해 팔괘비전 열역신서 증보판을 낸다. 미구에 닥칠 대 예언서다.

제2편 四象醫學 八象分類秘法

太陽人 I, II型 太陰人 I, II型 少陽人 I, II型 少陰人 I, II型

사상의학의 숙원인 팔상분류법을 완성공개. 체질에 맞는 이로운 식품과 해로운 식품을 분류했다. 같은 체질이라도 열 체질과 한 체질이 있고 장부가 다르기에 보사법을 수록해 놓았다.

제3편 生老病死와 사후영혼의 실상을 밝혔다

업장을 풀고 숙명을 뛰어 넘어라

건강을 원하거나 행복을 원하거나 천문을 열어야. 평생회비 50만원에 20만원에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천문이 열리면 생명의 에너지가 정수리를 통하여 몸속으로 유입되면서 손과 손사이에 자석의 밀고 당기는 것 같은 자장을 느끼며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은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 받고 천상 신명계로 떠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몸과 마음이 거뜨해지고 집안이 편안해지며 하시는 일이 서서히 잘 풀려갑니다. 건강과 행복을 찾는 천상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책값 30,000원 직접 오셔서 책을 구입하는 분에게는 운명상담은 물론 8상체질 분류도 무료로 해 드립니다.

주문 ☎ : (02)2216-6278 HP : 011-9803-4600
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